

## 한국 재정수지: 적자 소폭 줄었지만 국가채무 늘고 적자성 비중은 3 년째 상승

2026.08.20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2026 년 상반기 재정수지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총량은 소폭 개선, 채무의 질은 계속 나빠지는 혼합 그림이며, 어느 한쪽만 떼어 '건전화'나 '위험 확대'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1~6 월 관리재정수지는 -84.4 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94.3 조원 대비 9.9 조원 줄었다. 통화당국이 7 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물가와 금융불균형을 주된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재정이 전년보다 총수요를 덜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 자체는 긴축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이 개선폭은 남아 있는 적자 잔액의 약 11.7%에 불과하고, 전년 상반기 수치가 평년 수준이었는지 이례적으로 나뉘는지를 가릴 과거 데이터가 없어 이번 개선이 실질적인 것인지 단순히 비교 기준이 낮았던 데 따른 것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43.9 조원 웃도는 확장적 구조 자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고 단언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채무 쪽은 방향이 더 뚜렷하다. 국가채무는 1,415.2 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 조원(+8.7%) 늘었고, 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비중은 72.8%로 3 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 자체는 둔화됐다. 채무 증가율은 10.8%에서 8.7%로, 증가액은 127 조원에서 113.3 조원으로 함께 낮아졌다. 흥미로운 점은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 모두 증가 속도가 느려졌는데도 적자성 비중이 오히려 오른 이유다. 이는 금융성채무가 줄어서가 아니라, 적자성채무의 증가액(105 조원)이 금융성채무의 증가액(8 조원)을 압도적으로 웃돌았기 때문이다. 즉 '적자성채무가 폭증했다'는 표현은 잔액과 비중 기준으로만 맞고, 증가 속도 기준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책적 함의로 보면, 이번 지표는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뚜렷이 약화시키지도, 새로 강화시키지도 못하는 중립적 재료로 판단된다. 재정 자극이 전년보다 줄었다는 신호는 있지만 규모가 작고 기저효과 성격이 짙어, 통화당국의 인상 기조를 되돌릴 만한 근거로 쓰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하반기 추경 편성 여부, 세목별 개선 요인(경기 연동 세수인지 자산과세인지), 그리고 8 월 이후 코스피 급락이 자산 관련 세수에 미칠 파급 효과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6 월 누계 수치에는 최근 주식시장 조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                                                                                                                                                                                                |
|----------------------|------------------------------------------------------------------------------------------------------------------------------------------------------------------------------------------------|
| 발행일                  | 핵심 메시지                                                                                                                                                                                         |
| 2026-08-12 (이번)      | 6 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전년동기보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질이 나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3 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총량과 잔액·구성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혼재된 그림이며, 어느 한쪽만 떼어 '재정건전성 개선' 또는 '재정 위기 심화'로 요약하면 실제와 어긋난다. |
| 2026-07-12           | 2026 년 5 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415 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 숫자를 절대액만으로 읽으면 실상을 절반만 보는 셈이다.                                                                                            |
| 2026-06-12           | 한국 국가채무 1,415 조(+8.7% YoY)로 절대 수준은 선진국 중 최저권이나,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11.4%)가 더 빠르고 비중(72.8%)이 상승 중이며, 월간 재정수지 개선은 기저효과로 보이는 가운데 부채 구조의 실질적 취약화가 부각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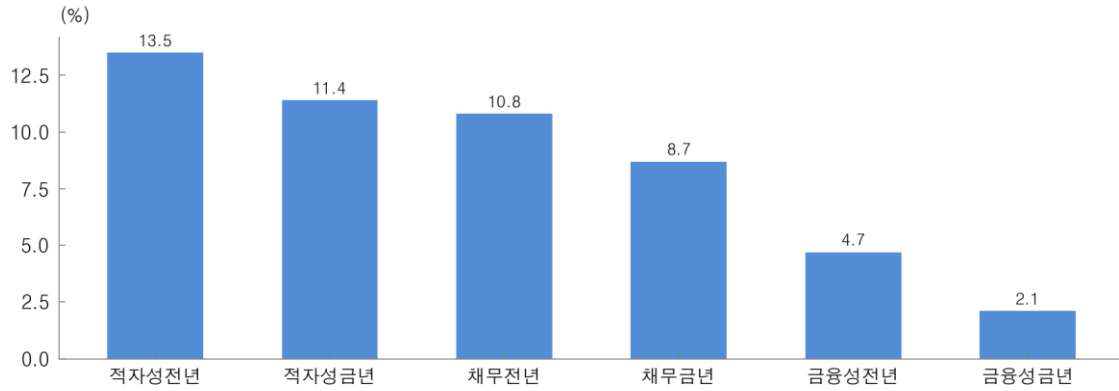
#### 2026 년 상반기 재정수지·국가채무 핵심 지표

| 항목       | 누적 실적                | 전년 동기 대비                     | 맥락                               |
|----------|----------------------|------------------------------|----------------------------------|
| 관리재정수지   | -84.4 조원(누적)         | -94.3 조 → +9.9 조 개선          | 개선폭은 잔여 적자의 약 11.7%, 기저효과 여부 불분명 |
| 통합재정수지   | -43.9 조원(누적)         | 전년동기 미제시                     | 관리재정수지와 40.5 조 차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제외 여부 |
| 총수입      | 381.9 조원(누적)         | 전년동기 미제시                     | 연간 예산(675 조) 대비 진도율 약 57%        |
| 총지출      | 425.8 조원(누적)         | 전년동기 미제시                     | 총수입 대비 +43.9 조 초과, 확장적 구조 유지     |
| 국가채무(D1) | 1,415.2 조원           | 1,301.9 조 → +113.3 조원(+8.7%) | 증가율 10.8%→8.7%로 둔화               |
| 적자성채무    | 1,029.5 조원, 비중 72.8% | 925 조 → +104.5 조원(+11.4%)    | 비중 3 년 연속 상승, 미래 세금으로 상환         |
| 금융성채무    | 385.7 조원             | 증가율 4.7%→2.1%, +8 조원         | 대응자산(외평기금·용자 등) 보유               |

####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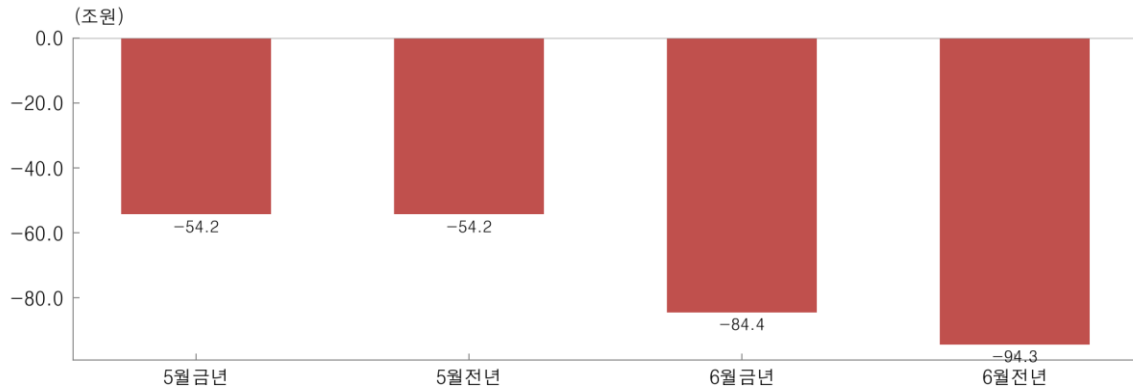
| 지표           | 값      |
|--------------|--------|
| 국가채무 전년대비(%) | 8.7    |
| 국가채무(조원)     | 1415.2 |
| 적자성채무(조원)    | 1029.5 |
| 관리재정수지(조원)   | -84.4  |
| 총수입(조원)      | 675.0  |
| 통합재정수지(조원)   | -43.9  |

### 국가채무 구성요소별 증가율 변화(전년→금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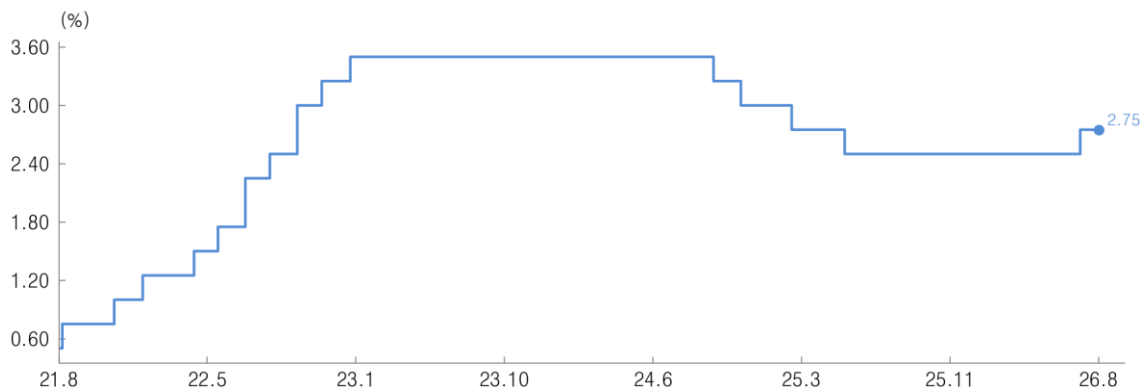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5월·6월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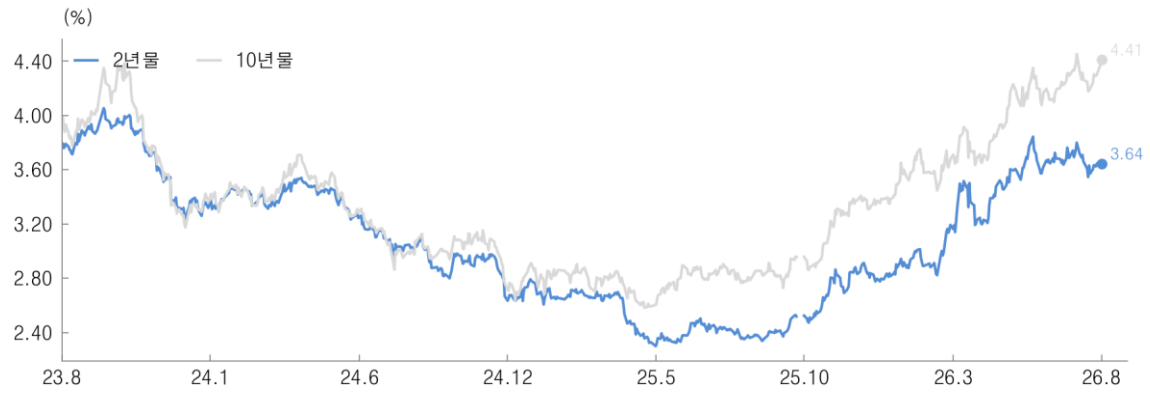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한국 기준금리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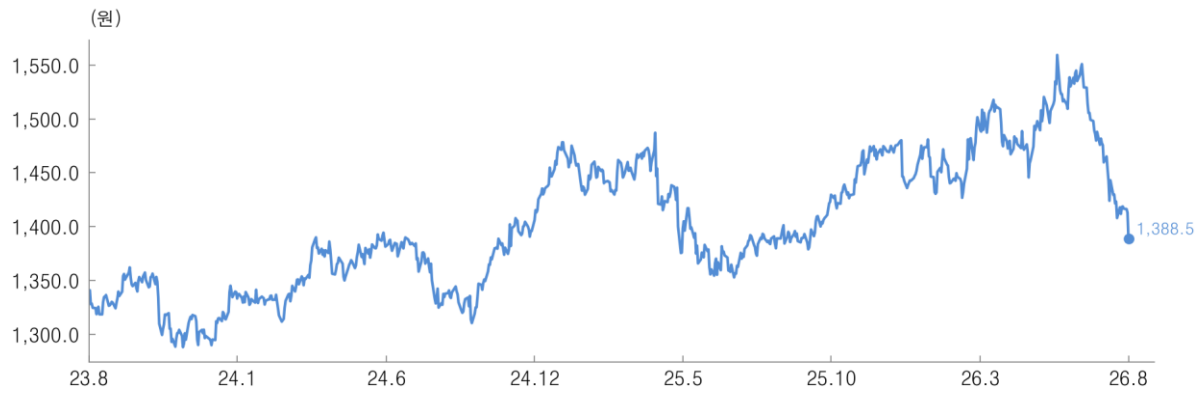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한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원/달러 환율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